

6. 建設市場 開放에 對備한 技術開發

資料提供：建設部

- 건설부는 앞으로 국내외의 건설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국내의 기술집약형공사의 시공, 특수시설물의 설계, 감리분야는 선진외국업체에 부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대시장 규모이면서도 그동안 사실상 진출이 막혀왔던 일본, 미국 등에의 진출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 건설기술 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 건설시장 규모 : 우리나라 1.0(28조원), 미국 9.2배(263조원), 일본 14.4배(411조원)

○ 그 추진방향은

- 「양과 기능」위주로 성장되어 왔던 건설업이 「질과 기술」위주로 전환되도록 기술중시정책을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 기술개발투자자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 기술투자액의 20배를 도급한도액에 가산
 - 우수시공업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 용역 proposal평가시 가산점 부여
 -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혜택 부여하며
 - 2~5년간 무단사용을 규제하여 신기술보호
 - 해당공종공사비의 3%를 기술사용료로 지급
 - 공공발주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고 당해공종에 참여권 부여
 - 공공공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시 절감공사비의 전액을 보상하는 기술개발 보상제도도 시행할 계획이고
 -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를 확대하며
 - 과거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10% 수준으로 발주하던 턴키공사를 '94년에

는 20%로 높이고 '95년부터 점차 이를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 설계가 우수한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평가점수 산정방식을 종래 절대평가에서 우수한 업체순위별로 일정한 점수격차를 두는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우수설계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 '93년도에 새로 도입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도 기수능력이 우수한 적정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등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체제로 전환하고

○ 우리여건에 맞는 분야를 특화하여 집중 연구개발하고 나머지분야는 외국기술을 도입·개량하는 경제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하고 산·학·연·관 공동으로 '97년까지 16개 특화과제에 대하여 3,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은

- 건설자재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비하여 인공골재, 섬유보강 콘크리트, 고강도 경량강재등의 신건설자재의 개발
- 초고층빌딩, 인테리전트빌딩 및 지하공간의 설계·시공기술의 개발
- 교통시간 단축 및 교통소통능력을 증대시키는 첨단도로 교통체계(IVHS)의 개발
- 노동력부족에 대비한 건설자동화기술과 진동과 소음이 없는 무공해 시공기술의 개발등임.

- 우리기술이 부족한 분야에는 외국업체와의 합작 또는 기술협력을 유도하여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함.

○ 아울러 건설기술정보 전달체제를 강화하여 자체개발기술과 도입기술을 집합. 전산화함으로써 전 건설업계가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